

비에케스(Vieques)의 반(反)해군기지 주민운동 일고

장 원 석

〈국문요약〉

푸에르토리코의 작은 섬으로서 미국의 해군기지가 있는 비에케스 섬은 근래에 들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1999년 4월 해군 전투기의 오탁으로 현지인 경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비에케스, 푸에르토리코 본토, 나아가 미국의 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대규모의 반해군기지 투쟁이 촉발되었다. 시위자들은 연방 경찰이 그들을 강제연행 할 때까지 13개월 동안 폭격장을 점거하고 세계 각지의 평화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하였다. 결국 미국 정부는 기지 폐쇄를 결정하였으며 비에케스는 자연친화적인 휴양도시로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비에케스 반해군기지 투쟁의 근본적인 성격은 반식민주의와 민족 해방이라는 정치적 맥락과 주민의 복지과 안전이라는 지역적 이슈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 글은 먼저 비에케스 해군기지의 역사를 푸에르토리코의 근현대사와 관련하여 살펴 본 후, 이에 저항하는 주민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1999년 사태의 전개과정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비에케스 해군기지 반대투쟁의 의의를 생각해본다.

I. 머리말

비에케스는 미국의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의 부속도서로서 푸에르토리코 본 섬에서 약 1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이다. 면적은 51평방 마일로서 오키나와의 약 9분의 1 혹은 맨해튼의 2배이며 인구는 약 9천 4백 명이다. 미군의 주요 상륙훈련, 잠수함 작전, 함포사격과 공중 폭격훈련이 이곳에서 실시되었으며 대서양 함대 훈련뿐만 아니

라 나토 와 중남미 연합군 모의 훈련, 발칸, 아이티, 이라크, 소말리아 파견부대 훈련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미 해군은 미국의 안보와 국익에 비에케스 해군기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섬의 서부지역은 탄약저장 지대이고 동부지역은 상륙 및 폭격훈련장으로서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민간인은 중부지역에 샌드위치 상태로 거주해왔다. 이 섬은 본래 사탕수수 농장을 지역산업으로 하고 있었으나 군사기지로 편입된 후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군이 관광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결과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이 되었다. 일부 중산층 백인들이 이곳을 휴양지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1999년 4월 비에케스 섬에서 훈련 중이던 미국 해군 전투기가 목표대상을 잘못 조준함으로써 현지 주민인 민간인 경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비에케스 섬뿐만 아니라 푸에르토리코 본토, 미국의 푸에르토리코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사이에서 엄청난 항의를 촉발시켰다. 국내외에서 몰려든 시위자들은 연방보안관들에 의해 강제철거를 당할 때까지 13개월 동안 폭격훈련장을 점거하였다. 항의자들은 폭격 중단, 해군기지 철수, 토지 반환, 오염된 기지의 정화를 요구하며 비폭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시위에 참가했던 2명의 푸에르토리코 출신 미국 연방의회 의원이 체포되기도 하였다. 수년간의 투쟁이 계속된 후, 2003년 5월 미군은 비에케스 섬에서 철수를 시작하였고 해군기지는 폐쇄되었다, 미군이 사용하던 기지의 일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일부는 미국 어류·야생동물국 관할로 이관되었다. 현재는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여러 지역공동체들은 군사기지나 군수산업 관련 시설의 존재로 인해 건설, 유통, 서비스 등 분야에서 경기 특수를 누렸고 그 결과 군 기지는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하였으며 지역의 정치인들은 기지이전이나 폐쇄가 거론될 경우 전방위 로비를 행하며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¹⁾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일부 지역에서 군사기지의 환경

파괴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지 이전을 요구하거나 군사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²⁾ 한편 해외 미군기지의 경우, 토지의 강점이나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 등 무리한 기지건설과 빈발하는 인권침해, 불충분한 경제적 보상과 지역사회에의 기여, 대규모적 환경파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주민적 저항을 초래하곤 하였다. 비에케스 섬의 반해군기지 운동은 미국의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특수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군기지의 일반적 맥락 속에서 고찰될 수 있다.

비에케스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그것을 푸에르토리코의 반식민주의 투쟁 혹은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비에케스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이라는 주민운동적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이다. 전자가 투쟁의 정치적 맥락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경제적이며 문화적인 요인을 강조한다. 마리오 무릴로의 『저항의 섬,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와 미국의 정책』³⁾은 비에케스 반해군기지 투쟁의 요체가 식민지 관계 청산의 메시지에 있다고 본다. 아밀카르 안토니오 바레토의 『비에케스, 해군, 푸에르토리코의 정치학』⁴⁾ 역시 비에케스 사태를 푸에르토리코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검토한다. 바레토에 따르면 비에케스 투쟁은 생존권이나 환경문제의 해결 혹은 평화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푸에르토리코인 전체에 가해진 억압과 차별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자 민족주의

1) Roger Lotchin, *The Martial Metropolis : U.S. Cities in War and Peace* (New York : Praeger, 1984); Ann Markusen et al., *The Rise of Gun Belt : The Military Remapping of Industrial America*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David Sorenson, *Shutting Down the cold War : The Politics of the Military Base Closure*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8).

2) 하와이에서는 마쿠아(Makua) 계곡의 미군 훈련장 철수를 요구하는 현지 주민과 환경보호자들이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훈련장의 대체 지역을 모색하는 예비 조사 과정에서 텍사스의 킹스빌(Kingsville)과 네바다의 르노(Reno) 지역 시민들은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3) Mario Murillo, *Island of Resistance : Puertorico, Vieques and U.S. Policy* (New York : Seven Stories Press, 2001).

4) Amílcar Antonio Barreto, *Vieques, the Navy and Puerto Rican Politics* (Gainesville : University of Florida Press, 2002).

의 발로였다. 어떤 의미에서 비에케스는 푸에르토리코 저항운동의 상징적 공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바레토는 오히려 뉴욕 푸에르토리코 공동체의 비에케스 투쟁을 더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0년 푸에르토리코 지방선거에서 비에케스 주민의 60% 이상이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유지를 찬성하는 정당 후보를 시장으로 당선시켰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⁵⁾ 그 동안 수차례 푸에르토리코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현재의 자치령 체제를 고수하는 안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안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왔으며, 독립을 희망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5%를 넘어 본적이 없다. 한편 현지주민조사에 입각한 맥카프리의 연구인『군대와 민중의 저항 : 비에케스의 미 해군』⁶⁾은 이들과 견해를 달리한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의 매력과 물질적 혜택 때문에 자치령을 고수하는 체제 내 투쟁을 전통적으로 선호해 왔다. 그는 비에케스 반해군기지 투쟁이 이질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인 동인은 지역적 이슈였다고 말한다.

이 글은 주민운동적 해석과 민족주의적 해석이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맥카프리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비에케스의 반해군기지 투쟁을 고찰한다. 먼저 비에케스 해군기지의 역사를 푸에르토리코의 근현대사와 관련하여 살펴 본 후, 이에 저항하는 주민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1999년 사태의 전개과정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비에케스 해군기지 반대투쟁의 의의를 생각해본다.

II. 비에케스 해군기지의 역사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아름다운 섬으로 울창한 숲과 산호초,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해왔던 비에케스는 식민지의 식민지로서 푸에르토리코와

5) César Ayala, "Recent Works on Vieques, Colonialism, and Fishermen", *Centro Journal*, Vol. x v, No.1 (Spring 2003), p. 214.

6) Katherine T. McCaffrey, *Military Power and Popular Protest: The U.S. Navy in Vieques, Puerto Rico*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운명을 같이 해왔다. 16세기에 유럽의 강자로 등장한 스페인은 신대륙 진출 과정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였다. 당시 카리브해는 유럽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는데 푸에르토리코를 선점한 스페인은 산 후안시를 요새화한 후 철저히 군사기지로 개발하고 도시의 상업과 무역 기능을 외면하였다.

19세기에 새롭게 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카리브해를 미국의 지중해로 간주하며 중남미와 극동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파나마 운하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카리브해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미국은 1898년 해군 차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지휘 하에 스페인과의 전쟁에 돌입하여 승리를 거둠으로써 푸에르토리코와 필리핀을 확보하였다.⁷⁾ 카리브 해에 산재해 있는 대부분의 미 해군기지는 1898년 전쟁의 전리품이다. 푸에르토리코에 진주한 미 해군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산 후안시와 쿨레브라(Culebra) 섬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였다. 당시 푸에르토리코는 스페인과의 협상을 통해 자치권을 확보한 후 수개월 동안 자치정부를 실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치정부와 별도의 협상을 시도함 없이 푸에르토리코를 인수하였다. 오랫동안 경제적 수탈과 정치적 탄압을 받아왔던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미군의 출현에 오히려 기대를 걸었고 별다른 저항을 시도하지 않았다. 미국정부는 명백한 식민지 정책을 수립함 없이 푸에르토리코 통치를 시작하였으며 초기에는 미군 퇴역 장성이 지사로 임명되었다.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자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권 확대조치가 취해졌는데, 새로운 법률은 납세의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고 대통령 및 연방의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제한된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와 30년대에 들어서 국제 설탕가격이 하락하자 사탕수수 재배에만 의존하던 푸에르토리코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수차

7) 적당한 전쟁의 명분을 찾지 못했던 미국은 하바나 항에 정박 중이었던 메인호의 의심스러운 폭발사건을 구실로 스페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Remember the Maine!"이 전쟁 구호였다. Russell Baruffi, "Environmental Conflict and Cultural Survival in The Case of Vieques" (2002), p. 3.

례에 걸친 허리케인의 강습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 결과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의 빈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분노와 좌절감으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급진적인 노동운동도 출현하였다. 이들 민족주의자들과 경찰 사이에 유혈사태가 발생하였고, ‘빵, 토지, 자유’를 달라는 구호가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푸에르토리코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미국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독일 잠수함이 카리브 해에 출몰하는 사태 속에서 푸에르토리코는 전략적 요충지로 재차 부각되었으며 미국 정부는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소요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기 위해 경제구조 개편과 정치 자유화 정책이 시도되었고 푸에르토리코 민족주의자들 역시 파시즘과의 전쟁이라는 대의 앞에서 투쟁을 유보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 정부는 플로리다, 파나마, 푸에르토리코를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구상하며 푸에르토리코 본토 전역에 군사기지를 강화하였다. 푸에르토리코의 루즈벨트 로드(The Roosevelt Roads) 해군기지는 한 때 대서양함대 물동량의 60%를 수용하는 제2의 펄 하버 건설을 목표로 하기도 하였으나 독일로부터의 위기가 사라지자 계획은 취소되었다. 1948년 최초의 주민 선거를 통해 지사가 선출되었으며, 식민지를 부정하는 유엔현장의 이념에 따라 자치령(Commonwealth)안이 채택된 후 1952년 주민 투표에서 승인을 받았다. 전쟁이 끝나자 푸에르토리코 자치정부는 전시에 수용된 토지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비에케스는 1493년 콜롬부스의 제2차 항해 때 발견된 섬으로서 본래 타이노(Taino) 인디안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1524년 스페인은 이들도착민들을 정복하고 지배권을 선언하였으며 이후 안보상의 이유로 19세기까지 이 섬을 무인도로 방치하였다. 비에케스 섬은 한 동안 해적과 범법자들의 소굴이 되기도 하였다. 울창한 숲과 비옥한 토양, 풍부한 수자원 때문에 영국이 계속해서 섬 진입을 시도했지만 스페인 함대에 의해서 번번이 격퇴 당하곤 하였다. 스페인은 뒤늦게 1815년이 되어서야 자국 국민을 정착시키는 사업에 착수하여, 1843년에 성곽건설을 완성하

였다. 미서전쟁으로 미국령이 된 비에케스 섬 역시 사탕수수 재배를 주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1930년대에 설탕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주민들은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시작하였고 섬은 공동화되었으며 남아있던 주민들은 기아 직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인 1941년에 거대한 탄약저장소 시설을 목표로 해군 기지 건설이 시작되었을 때, 두 개의 대농장이 대부분 토지를 장악하고 있었고 주민들 다수는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수용 과정은 별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만이 제공되었다. 주민들은 새로운 정착지로 강제 이주되었지만 최악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⁸⁾ 전쟁이 끝나고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농업재건 프로그램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자 새로운 군 전략이 수립되었고, 1947년 비에케스 해군기지는 상륙훈련과 폭격 훈련의 장소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해군 당국은 푸에르토리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농업정책을 백지화하며 계속적인 토지 수용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평화상태를 구가하고 있었지만 비에케스는 냉전의 불모가 되었다.⁹⁾

1959년 쿠바가 공산화되자 비에케스는 카리브 해에서 가장 중요한 미해군기지로 부각되었다. 가르시아 캠프(Camp Garcia)에는 해병부대가 보강되었으며, 피그만 침공 당시 비에케스 기지는 퇴각하는 부대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였다.¹⁰⁾ 이후 해군 당국은 군사작전에 반대가 된다는 이유로 푸에르토리코 정부의 비에케스 관광진흥정책과 리조트 건설 계획을 방해하였으며, 비키니(Bikini) 섬의 전례를 의식하며 비밀리에 주민추방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푸에르토리코 주지사 유

8) 당시 비에케스 시장이었던 안토니오 아빌라는 주민의 99%가 신속한 기지 건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César Ayala Casás and José Bolívar Fresneda, "The Cold War and the Second Expropriation of the Navy in Vieques," *Centro Journal*, vol. xviii, no.1 (spring 2006), p. 20.

9) Katherine T. McCaffrey, *op. cit.*, p. 36.

10) *Ibid.*, p. 37.

노즈는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탄원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인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미지만 심어줄 것이라고 호소를 하며 계획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케네디의 명령에 의해 해군의 계획은 일시적으로 무산되었지만, 1964년 해군은 또 다시 토지수용과 주민강제이주 계획을 공표하였다. 이번에는 비에케스 시장인 리베라가 주민들을 대표하여 존슨 대통령과 면담을 행하며 군부 계획의 취소를 통보 받는데 성공하였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항은 주지사나 시장이 비에케스 주민들의 애국심과 미국 시민으로서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연방정부의 선처를 구하는 소극적 권리 주장의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이 되자 미국이 월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푸에르토리코 민족주의 운동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969년 징집을 거부하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을 때, 푸에르토리코 대학의 학생들은 ROTC 건물을 습격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며 전후 최대의 반미시위를 감행하였다. 1971년에 사태는 폭동으로 비화되었고 우익단체에 의한 반격이 뒤를 따랐다. 이러한 사태를 배경으로 쿨레브라 섬에서도 반해군기지 주민운동이 시작되었다. 쿨레브라 섬의 해군기지는 푸에르토리코 본토의 루즈벨트 로드 해군기지, 비에케스 섬의 해군기지과 더불어 삼각망을 형성하였는데, 미국은 1948년부터 쿨레브라 섬을 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해왔다. 해군당국이 기지 확장을 위해 6백여 명의 주민에 대한 강제이주를 시도했을 때 쿨레브라 해군기지를 식민지의 상징으로 간주했던 푸에르토리코의 좌파 운동가들은 훈련장을 점거하고 인간 사슬을 만들며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쿨레브라 해군기지 점거투쟁은 푸에르토리코 전역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1974년 닉슨 대통령은 기지의 이전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쿨레브라 기지의 대체 훈련장으로 결정된 곳은 비에케스 섬이었다. 그 결과 쿨레브라 문제의 해결은 비에케스 문제의 발단이 되었으며, 비에케스의 반해군기지 투쟁은 쿨레브라 기지 폐쇄 후 이 섬에서 강화된 폭격훈련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¹¹⁾

1990년대에 들어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파나마 기지의 반환과 판타나

11) *Ibid.* p. 72

모 기지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푸에르토리코 해군기지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었으며 이곳은 카리브 지역의 미군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마약 및 범죄와의 전쟁, 불법이민자 통제 등 새로운 이슈가 제기됨으로서 푸에르토리코 해군기지의 전략적 위상은 새로운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었다.¹²⁾ 1999년 미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해군 책임자는 비에케스 해군기지가 실제 사격을 행하며 상륙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지로서 대서양 함대의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증언하였다.¹³⁾ 비에케스 기지는 또한 단순한 상륙훈련 외에도 잠수함과 미사일, 기타 최첨단 무기의 시험 장소가 되었다.

III. 반해군기지 주민운동의 전개

1941년 미군의 진입 당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던 주민들은 경제난 해소를 기대하였기 때문에 기지건설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이렇다할 집단적 정체성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해군 당국은 두 개의 거대 기업이 지배했던 중세적 농장경제질서를 청산하고 비에케스 섬의 새로운 개발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해군의 상주 병력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훈련 기간 중에만 군인들이 상륙을 하였으며 군기지 건설 외에는 별다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용기회의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무하자 크게 실망하게 되었다. 반면 시간이 흐르면서 흉등가가 출현하였으며 해군과 주민 사이에 충돌이 잦아졌고 민간인에 대한 강력사건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군은 군사작전상의 필요를 이유로 지역개발을 방해하였으며 급기야는 주민 강제이주 계획을 추진하려 하였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피에케스 주민들은 초창기의 단순한 청원권 행사를 뛰어넘어 점차 직접적

12) 일부 관측통에 의하면 마약과의 전쟁 슬로건은 콜롬비아 좌익게릴라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다. The Internationalist, "Puerto Rican Labor : Shut Down All U.S. Bases!" *The Internationalist* (May 2000), p. 4.

13) Russell Banuff, *op cit*, p. 12.

인 투쟁을 시도하게 되었다. 1999년의 파국사태에 이르기 전 비에케스 섬 주민들의 반해군기지 투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목할 만한 사태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1978~1983년의 '어부의 전쟁'(Fishermen's War)이다. 1977년 해군당국은 비에케스 남부해안 지역에 공항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민간 개발이 금지되고 추가적인 주민 퇴출이 뒤따를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은 해군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며 가르시아 캠프 앞에서 항의 시위를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소수의 좌파 운동가들만이 간헐적으로 투쟁을 시도했던 반면, 이후에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투쟁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비에케스 반해군기지 운동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몇몇 조직이 주민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데 실패하자 어부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 비에케스 섬 어부들 다수는 본래 농민들이었으나 농장경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생업을 바다에 의존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비에케스 주민들에게 어로 행위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의 하나로서 농민들은 농번기가 아닌 시기에는 종종 바다로 나아가 생계를 연명해왔다. 해군의 각종 규제조치로 어장 접근이 금지되고 환경 파괴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로 고통을 받게 된 어민들은 위기意識 속에서 투쟁을 선언하였다. 연합군의 대규모적 훈련계획이 발표되고 주민들의 해상 출입이 30일 동안 금지되었을 때, 어부들은 피쉬 인(fish-in) 투쟁을 시작하였다. 1978년 2월, 18척의 고깃배는 전함들의 함포사격 작전지역으로 돌입하여 NATO군의 상륙훈련을 저지하였다. 이들을 위협하기 위해 헬리콥터가 동원되었지만 그들은 하늘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항하였다. 전 세계가 이들의 투쟁을 주목하였고 언론이 이들의 행동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도하였다. 어부의 전쟁은 정치적 투쟁이 아닌 주민들의 생존권이라는 '정통적인'(authentic)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¹⁴⁾ 푸에르토리코 본토에서는 「비에케스보호국민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파나마,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연대가 이루

14) Katherine T. McCaffrey, *op. cit.*, p. 83.

어졌으며, 비에케스 투쟁은 식민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유엔 위원회의 의제로 상정되었다. 어부들의 투쟁에 동참했던 단체들 중에는 '양키 고 홈'을 외치는 과격한 민족주의 집단도 있었으며 어부들과 후원 조직 상호간에 갈등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해군 당국은 이에 맞서 현지 주민과 일부 백인들을 중심으로 친해군단체를 결성하고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반대시위를 조직하였다. 해군은 또한 비에케스 주민 투쟁을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사태로 비난하였으며 우익단체들은 FBI의 수사를 요구하였다.¹⁵⁾ 1983년 푸에르토리코 주지사 로메로가 비에케스 사태에 개입하여 해군과 타협을 한 결과 포르틴 협약(Fortín Accord)으로 알려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미국의 주 편입을 추진했던 로메로 지사와 해군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의견 상으로 협약은 주민의 승리라고 볼 수 있었다. 해군은 양해각서를 통해 비에케스 섬의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고 주민들의 선량한 이웃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임을 천명한 후 훈련을 재개하였다. 또한 일부 군부대 소유지의 주정부 반환과 캠프 가르시아의 해병부대 철수 등의 성과도 있었다. 해군의 약속은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지만 '어부의 전쟁' 이후 푸에르토리코에서 미 해군의 지위는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둘째, 1987년의 해군 소유지 불법 정주투쟁이다. 1987년 봄 해군은 비에케스 현지 주민인 카멜로 펠릭스 마타(Carmelo Félix Matta)를 추방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다. 펠릭스는 해군 소유지 내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여러 주민들 중 한 사람이었다. 조직적으로 점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법 정주자들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킴 없이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카멜로 펠릭스처럼 일부 주민들은 당국에 의해서

15) 비에케스 해군기지 문제는 푸에르토리코의 미국 내 지위라는 정치적 맥락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FBI는 운동조직에 대해 감시를 행하고 있었으며 180만개 이상의 서류를 관리하고 있었다. John Lindsay-Poland, "U.S. Military Bas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Foreign Policy in Focus*, Vol. 6, No. 35 (October 2001), p. 2.

지정된 비좁은 정착지를 피해 조용한 해군 부지로 몰래 진입을 하곤 하였다. 그들은 불법 정착을 한 후 시당국에 대한 압력을 통해 전기와 수도시설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주소를 부여받아 우편 서비스의 혜택도 누렸다. 이런 사태를 방관하던 해군이 어느 날 이들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카멜로 펠릭스의 변호사는 민간 거주지역과 군부대간의 경계표시가 불명확하고 당사자가 해군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들어 항변을 했으나 연방정부의 푸에르토리코 지방법원은 해군 편을 들어 즉각적인 철거를 명령하였다. 미국의 연방 보안관과 비무장 해군병사들이 펠릭스 가족을 퇴출하기 위해 도착하였을 때, 소식을 들은 백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집결하여 이들을 가로 막고 해군 트럭을 불태우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지원 병력이 도착하여 추방작업을 완료하고 질서를 회복하였으나, 이 사실이 전국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수많은 동조자들이 재집결하였고 펠릭스는 며칠 후 다시 옛집으로 돌아왔다. 펠릭스는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해군과의 투쟁을 선언하였으며 푸에르토리코 국기가 지붕위에 게양되었다. 사람들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 그의 집을 몬테 카르멜로(Monte Carmelo)라고 불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운동가들은 고조되는 반해군 정서에 편승하여 군부대 토지 반환투쟁을 시작하였다. 1989년 5월에는 5백여 명의 잘 조직된 주민집단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800 에이커의 해군 부지를 점거한 후 '토지구출'(land rescue) 투쟁을 선언하였다.¹⁶⁾ 이들은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토지 등록을 행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생존을 위한 자구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극적인 '토지구출' 투쟁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생존권 수호나 사회적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일정 지분의 토지를 확보하여 이를 매각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끼어든 주민들도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기심이 표출되고 대의명분이 흐려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토지구출' 투쟁을 점차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16) Katherine T. McCaffrey, op. cit., p. 102.

되었다.¹⁷⁾ 허리케인이 섬을 강타하여 인근 지역의 모든 가옥들을 파괴하였을 때 해군은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하여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토지 경계선을 따라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이것으로 ‘토지구출’ 투쟁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무단 점유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했던 해군 당국의 처사는 주민들의 원성을 초래하였으며 해군은 평화롭게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셋째, 1993년의 전투기 오폭사건 항의 운동이다. 1993년 10월, 해군 전투기가 훈련 중 실수로 민간인 거주 지역 가까운 곳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해군 당국은 시끄러운 소음에 대해 사과한다는 짝막한 성명만을 발표하였다.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가르시아 캠프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이 사건은 1999년의 오폭 사건과 달리 심각한 주민 소요사태로 발전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핵심적인 주민운동단체의 전략 변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자 미국 정부는 해외의 14개 주요 기지를 포함하여 275개 부대의 훈련을 축소하거나 일부 병력을 철수 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필리핀과 하와이에서는 오랫동안 분쟁을 겪었던 기지들이 폐쇄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에케스구출및개발위원회」(CPRDV)가 조직되었는데, 이 단체는 비에케스를 해군의 지배로부터 구출하여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개발의 과실을 모든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립 취지 속에서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외부의 도시계획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비에케스 개발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위원회는 과거의 투쟁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며 대표성을 확보하고 온건한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였다.¹⁸⁾ 위원회는 푸에르토리코 주권회복 투쟁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비에케스의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여 경제 개발을 추진한다는 제한된 목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였다. 1993년 봄에 위원회는 비에케스 해군기지를 기지폐쇄 대상 리스트에 포함시켜 줄 것을 연방정부

17) *Ibid.*, p. 103.

18) *Ibid.*, p. 107.

의 기지정리위원회에 호소하는 청원운동에 착수하였다. 같은 해 10월 전투기 오폭 사태가 발생하자 위원회는 피켓 항의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군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했으며 그들은 몇 명의 초병이 지키고 있는 가르시아 캠프 정문 앞에서 상징적인 시위를 했을 뿐이었다. 그 대신 위원회는 오폭 사건을 규탄하고 폭격훈련 중지와 부대 철수를 요구하는 우편엽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여 3,750장의 우편엽서를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위원회는 효과적인 투쟁 방식을 놓고 고민을 하였지만 가능한 한 대중동원 방식을 삼가하려 하였다. 위원회는 미군기지 철수운동이 반미주의로 비추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불만을 비정치적인 맥락에서 전달하려 노력하였다. 로비와 외교를 강조하는 위원회의 온건한 투쟁방식에 대해 일부의 불만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에케스 주민들은 만족감을 표시하였다.¹⁹⁾

넷째, 1994~1998년의 레이더 기지 건설 반대운동이다. 비에케스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미 해군당국은 푸에르토리코 정부와 협력하여 비에케스섬에 레이더 기지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 과거에 미군의 레이더 시설은 주로 소비에트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카리브 해와 라틴 아메리카의 마약 거래를 규제한다는 새로운 명분이 추가되었다. 1992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주지사 로셀로는 이러한 해군의 조치를 즉각 환영하였다. 레이더 기지는 버지니아의 노포크, 푸에르토리코 본토의 라자스 기지와 연결될 예정이었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또 다시 새로운 기지 시설을 건설하려는 해군 당국의 처사에 분노한 ‘비에케스구출및개발위원회’는 본격적인 투쟁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내부적으로 투쟁전략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었지만 기지 철수와 토지 반환이라는 직접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레이더 기지 건설로 인해 야기될 환경파괴와 주민건강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자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다.²⁰⁾ 공청회를 앞두고 위원회는 대규모적인 환경파괴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 특

19) *Ibid.*, p. 129.

20) *Ibid.*, p. 140.

히 발암효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위원회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시 청사 앞에서 푸에르토리코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공청회장 내부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언론은 더 이상 이들의 시위를 반미투쟁이라 표현하지 않았으며 투쟁은 과거와 달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심지어 해군 옹호단체들까지 레이더기지 건설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환경과 주민건강의 의제를 놓고 해군기지 철수를 주장하는 운동가들과 지역의 백인 거주자들 사이에 처음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었다.²¹⁾ 위원회는 레이더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조직하였으며, 수도인 산후안에서는 수만 명이 참가하는 동조 시위가 뒤를 따랐다. 그러나 레이더기지 건설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까지 기지 건설을 중단한다는 푸에르토리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였다. 지속적으로 항의 시위를 주도하였던 위원회는 1997년 2월에 '비에케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행진'을 기획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극적으로 표출하기도 하였지만 해군의 사업 강행으로 결국 레이더기지건설 저지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투쟁은 건강과 환경의 의제를 부각시키며 주민적인 단결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 사건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해군의 무관심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1999년 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상의 반해군기지 주민운동들은 대체적으로 주민의 생계와 복지를 주요 관심사로 삼는 물질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주민들의 불만은 특히 생계를 위협하는 최악의 경제상태에서 비롯되었는데, 1999년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임명한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는 비에케스 섬의 경제적 낙후가 해군기지의 영향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²²⁾ 2001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섬 주민의 73%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50~60% 수준에 이른다. 물류비용으로 인하여 식품가격은 여타 지역보다 15%이상 비싸고 관광 산업은 거의 미개발 상태이

21) *Ibid.*, p. 141.

22) Russell Benuffi, *op. cit.*, p. 8.

다.23) 대부분 주민들은 취업의 기대를 포기했으며 젊은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있다. 해군의 레이더 기지 건설 강행 이후 분노했던 비에케스 주민들은 최후의 결정적 사태를 맞게 되었다.

IV. 1999년 오폭사건과 기지 폐쇄 결정

레이더 기지 건설 투쟁이 있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군과 주민의 대립은 다시 한번 폭발하였고, 이 마지막 투쟁에서 비에케스 주민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1999년 4월 19일, 훈련 중이었던 해군항공기의 실수로 목표물에서 1마일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해군 관측소가 폭격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폭발로 경비병 1명과 민간경비원이었던 현지주민 다비드 사네 로드리게즈(David Sane Rodríguez)가 사망하였다. 제복을 입은 경비원의 죽음은 오히려 충격효과를 유발하였다. 희생된 사람은 바로 미군 부대를 위해서 일했던 주민이 아닌가. 사네의 죽음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갈등을 다시 한번 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장례식이 끝나자 항의자들은 폭격훈련장을 점거하고 캠프를 설치하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들이 다비드 산(Monte David)이라 이름을 붙인 언덕 위에는 그동안 섬에서 사망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하얀 십자가가 세워졌다. 소형 보트들이 농성자들을 위해 날마다 생활 물자를 운반하였고 군에 의한 강제 해산이 이루어지기 직전 폭격훈련장에는 13개의 캠프가 있었다. 항의자들은 캠프에 설치된 컴퓨터와 팩스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대의를 전 세계에 알렸다. 수도인 산 후안에서도 비에케스 섬의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의 비폭력 시위가 발생하였고,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저명한 인권운동가들이 세계도처에서 물려들었다. 서울, 오키나와 인도, 유럽에서 건너온 많은 인사들이 투쟁에 동참하였다. 계급투쟁을 주장하는 국제 공산주의 연맹이나 트로츠키주의자에서부터 푸에르토리코 독립을 주장하는 급진적 민족주의자에 이르기까지

23) *Ibid.*, p. 7.

다양한 세력들이 집결하였다. 그 결과 해군의 군사훈련은 1년간 중단되었다.

1999년 푸에르토리코 주지사에 의해 비에케스 사태 조사를 위한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3개의 주요 정당, 교회, 여성, 어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비에케스섬의 탈기지화와 토지의 반환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00년 2월 로셀로 푸에르토리코 지사는 클린턴 대통령과의 협약을 발표하였다. 로셀로/클린턴 협약에 의하면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2000년 1월 연방정부로부터 4천만 달러의 경제 지원을 받는 대신 연습탄에 의한 훈련재개를 수용하되 훈련 일자는 연 90일로 축소할 것이며, 과거처럼 실사격 훈련을 계속 허용할 것인지 혹은 2003년 5월 1일까지 해군기지를 철수하도록 요구할 것인지를 묻는 주민투표를 연방정부가 2001년 8월에서 2002년 2월 사이에 실시하는데 합의하였다.²⁴⁾ 주민들이 기지의 계속적인 사용을 허용할 경우 추가로 5천만 달러가 제공될 것이라는 약속도 제시되었다. 협약 체결 직후 해군 당국은 여론 무마 공작에 착수하였고 즉각적인 폭격 중단을 요구하던 주민들은 지사의 행동에 대해서 큰 배신감을 느꼈다. 2000년 2월 푸에르토리코의 종교계는 연방정부의 현금 지원 약속을 비도덕적인 조치로 비난하며 산 후안에서 대규모의 항의시위를 조직하였다. 종교지도자들이 앞장섰던 이 시위에는 푸에르토리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만 명이 참여하였다.

2000년 5월 4일 FBI와 중무장한 연방경찰이 동원된 가운데 폭격장 캠프에 대한 강제해산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미 하원의원 2명과 비에케스 시장을 포함한 지역 주민과 운동가들 200여명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항의자들은 군 소유지 내부로 침입하여 군대의 권위를 부정하는 시민적 불복종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였으며 가르시아 기지

24) 보수주의자들은 클린턴의 타협안에 대해 국가안보의 문제를 주민투표에 일임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헤리티지 연구소 국방 및 안보 분석관인 잭 스펜서는 후임자인 부시대통령이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Jack Spencer, "The Importance of Vieques Island for Military Readiness," Heritage Foundation, *Issues* (February 16, 2001).

정문 앞에는 평화 캠프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시된 2000년 푸에르토리코 지사 선거에서는 비에케스 해군기지 폐쇄를 공약한 산후안 시장 칼데론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비에케스 시장 선거 역시 해군 추방을 주장한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1년 6월, 부시 대통령은 2003년 비에케스에서 모든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해군 당국에 대해 대안지를 모색하도록 지시하였다. 부시의 참모들은 계속되는 시위와 체포 사태가 라틴계 유권자들을 자극함으로써 부시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였다.²⁵⁾ 해군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해외의 미군기지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반해군 진영 역시 즉각적인 훈련 중지를 명령하지 않는 처사에 대해 비난을 가했다. 펜타곤은 이 사태가 하나의 전례가 될 것을 두려워했으며 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미칠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였다. 미 해병대 사령관은 오키나와 현 주민들이 비에케스를 주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결론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²⁶⁾

한편 해군 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미국 정부에 의한 주민투표 계획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자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독자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2001년 7월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비에케스 전 주민을 상대로 해군훈련의 즉각적인 중지와 기지 반환, 지속적인 훈련 실시 허용, 2003년 5월까지 모의실탄에 의한 훈련 허용과 이후 해군 철수 등 3개의 안을 놓고 투표를 행한 결과, 응답자의 68.2%가 즉각적인 훈련중지와 기지반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군은 푸에르토리코 정

25) 푸에르토리코의 인구는 380만 명인데 미국 본토에 200만 명의 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 사회가 존재한다. 한편 미국의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3천3백만 명에 이른다.

26) 97년 유엔환경개발특별총회에서 두 지역의 NGO가 조우한 이후, 2000년 7월 나하시에서 열린 국제환경NGO포럼에 푸에르토리코 시민단체 참여하여 비에케스 해군기지의 실상을 보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두 지역 주민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져, 푸에르토리코 시민단체들이 오키나와 가테나 기지 인건비 돌려짜기 행사에 참가하였다. 2001년 11월 오키나와 대표 역시 캠프 가르시아 앞 평화집회에 참가하였고 나고시의 주민투표와 비교를 하기도 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섬전체가 미군과 싸우는 비에케스 사람들” 『온누리 통일누리』 제48호 (2004/09/18)

부에 의한 주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연습탄에 의한 폭격훈련을 계속하였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테러 사태로 인해 상황은 비에케스 투쟁은 불리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²⁷⁾ 일부 우익 단체들은 비에케스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반미국적 행동이라고 비난하였으며 푸에르토리코의 운동단체들 역시 테러주의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시민적 불복종 운동의 일시적 중단을 선언하였다. 연방의회에서는 2003년에 예정된 비에케스 기지 폐쇄 일정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2001년 11월에 예정되었던 연방정부 주도의 주민투표는 9/11테러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결국 연방의회의 반대로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푸에르토리코 전 지역에서 행해질 구속적 국민투표 계획이 취소됨으로써 클린턴의 약속은 사실상 파기되었다. 의회는 기지 철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뿐만 아니라 현지주민의 의사에 굴복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해군 역시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현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강행을 주장하지 않았다. 푸에르토리코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에 분개한 미 의회는 비에케스 기지에 필적하거나 혹은 능가하는 후보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협약을 파기해도 좋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²⁸⁾ 2002년 4월 비에케스에서 폭격 훈련이 시작되자 시민단체들 역시 투쟁을 재개하였고 주민들은 또 다시 폭격훈련장으로 진입하였다.

미국 본토에서 비에케스 투쟁은 정치적 논쟁의 중심부에 서게 되었다. 히스패닉 유권자를 의식했던 뉴욕의 공화당 주지사인 조지 파타키(George Pataki)는 비에케스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발

27 그러나 이와 반대로 9/11은 현대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켜 대규모적 상륙 작전의 무의미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 동굴에서 비밀부대가 작전을 벌이는 현대전에 있어서 1940년대식의 상륙작전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였다. Katherine T. McCaffrey, *op. cit.*, p. 182.

28 Juan Giusti-Cordero, "Vieques after September 11", *The American Prospect* (November 26, 2001).

표하였으며 부시의 기지 철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힐러리 클린턴 역시 뉴욕 상원의원 선거에서 비에케스의 대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결국 2003년 5월 1일 비에케스 해군기지는 60년 만에 폐쇄되었다. 섬의 동쪽 반을 점유하고 있는 캠프 가르시아 훈련장은 미국 내무성이 넘겨받아 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1999년의 오폭사건으로 시작된 비에케스 주민들의 마지막 투쟁은 비폭력주의와 시민적 불복종을 특징으로 하였다. 주민들은 1970년대와 달리 시종일관 비폭력적 태도를 견지하였는데 여기에는 교회와 여성의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부 단체와 운동가들이 강경노선을 고집함으로써 내부적인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교회 조직의 제도적인 참여로 투쟁은 순화되었다. 하얀 적십자는 평화주의와 종교적 헌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 한 운동가는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폭동진압경찰을 투입하였을 때 사태는 폭발적이었지만 교회가 개입하여 비폭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회상하였다.²⁹⁾ 한편 과거 소극적 역할에 안주해왔던 비에케스 여성들이 어머니와 주부로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며 운동의 전면에서 나서게 되었다. 그들은 하얀 리본을 군부대의 철조망에 매달았으며 주민들에게도 그것을 의복에 부착하도록 권유하였는데, 그것은 “비에케스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³⁰⁾ 비에케스의 여성들은 또한 가르시아 기지 앞에 평화 캠프를 설치하여 평화시위를 주도하였으며,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본토를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행하고 후원조직을 방문하는 등 비에케스 투쟁의 지속과 대외적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하얀 십자가와 더불어 하얀 리본 캠페인 역시 비에케스 투쟁 과정에서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결국 비에케스 주민들의 투쟁은 생존권과 인권의 문제로 요약되었다. 비에케스 섬은 비재래식 무기 실험, 특히 열화우라늄탄의 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최악의 상태에 이른 상태이다. 모든 생태계가 오염된 결과 주민

29) Katherine T. McCaffrey, *op. cit.*, p. 168.

30) *Ibid.* n. 162

들의 암 발병율은 27%, 미숙아 출산율은 65%, 일반인 사망률은 47% 본토보다 더 높다. 모든 채소와 과일이 납과 카드뮴으로 오염되었으며 지하수와 토양 역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에케스 투쟁은 지역 주민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고찰될 수밖에 없었다.³¹⁾ 1999년 푸에르토리코 정부의 조사단이 섬을 방문했을 때 비에케스 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국가 방위의 이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주민의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에 반대한다.”³²⁾

V. 맺는 말

비에케스 투쟁의 승리는 국경을 초월한 시민사회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었으며 시민사회의 가치를 재확인한 사건이었다. 미국의 주류사회³³⁾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형성되었고 푸에르토리코의 언론과 종교, 시민단체가 비에케스의 투쟁을 지원하였다. 특히 미국의 시민사회는 민간에 의한 군부 통제라는 오랜 전통을 깨고 미군이 통제 불가능한 조직으로 발전하는 사실에 우려감을 갖게 된 결과 군부를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하였다.³⁴⁾ 비에케스의 투쟁은 미국에서 군사기지 문제가 주민투표에 회부되었던 최초의 사례이다. 비에케스 사

31) Comité Pro Rescate y Desarrollo de Vieques, “Military contamination on the Island of Vieques, Puerto Rico and the People’s Response,” p. 3. ‘비에케스구출 및개발위원회’가 연방정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청원서의 내용은 Rich Vázquez, “Comité Pro Rescate y Desarrollo de Vieques v United States Navy”, *Las Culturistas* (13 August 2005)을 참조할 것.

32) Justin O’Brien, “Puerto Rico Mayors Protest Military Bombing Exercises in Off-Shore Municipality of Vieques”, *U.S. Mayor Newspaper* (May 15, 2000).

33) 특히 미국의 메사추세츠, 버몬트 등 동북부의 지방의회는 비에케스 해군기지 투쟁에 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메사추세츠, 델라웨어, 코네티컷 소재지의 시장들은 산 후안에서 개최된 전국 시장회의에서 비에케스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Justin O’Brien, “Puerto Rico Mayors Protest Military Bombing Exercises in Off-Shore Municipality of Vieques”, *U.S. Mayor Newspaper* (May 15, 2000), p. 2.

34) 비에케스 반해군기지 투쟁은 군대와 시민사회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후 미국 사회가 지면하게 주요한 이슈를 제기하였다. Juan Giusti-Cordero, *op. cit.*

태에 일차적 책임은 전시적 사고와 전통을 고집하는 군부의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에 있었다. 해군 당국은 주민들의 물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위 진압과정에서 물리적 폭력과 인격적 모욕 등 시대착오적 행동으로 일관하였다. 『워싱턴포스트』지는 해군의 오만함과 강압적인 태도가 비에케스 사태를 세계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보도하였다.³⁵⁾ 비에케스 사태는 미군이 국가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강조하는 전시적 사고에 계속 집착함으로써 군대와 시민사회의 본질적 간극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지적되었다.³⁶⁾ 비에케스 사태 청문회에서 참석자들은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나 온순하게 행동해온 사실에 놀랐다고 소감을 이야기 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주민들은 해군 당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해군이 완고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비에케스의 해군기지 투쟁의 승리는 다른 한편 반식민지 투쟁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었다. 현지 주민들은 생존권 혹은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어떤 의미에서 투쟁의 순수성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 국민과 디아스포라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더라면 투쟁은 성공을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은 비에케스 섬 주민들에게 가해진 고통을 푸에르토리코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억압으로 간주하며 민족주의적 정서에 입각하여 투쟁을 지원하였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백년 이상의 지배를 겪은 후 처음으로 미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 하였다.³⁷⁾ 비에케스의 투쟁은 푸에르토리코의 지위에 대한 투쟁과 분리될 수 없었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의 민족주의는 주권회복과 독립을 주장하는 소수 급진세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치령을 거부하지 않는 실용주의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푸에르토리코 국민 대다수는 기존의 자치령

35) *Ibid.*

36) Katherine T. McCaffrey, *op. cit.*, p. 177.

37) *Ibid.* p. 175

체제를 옹호하거나 미국으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다.³⁸⁾ 자치령 체제를 옹호하는 국민들이 미국의 51번째 주 편입을 옹호하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민족주의적 색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들 역시 미국의 일부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양자는 수적으로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비에케스 투쟁은 주권보다는 인권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이었다는 표현보다 민족적이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³⁹⁾ 물론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을 주장하는 소수세력의 투쟁 역시 이러한 민족적 정서를 자극하는데 일조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투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정치적 투쟁을 전개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상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던 운동이었다.

비에케스 투쟁에서 있어서 시민사회와 민족주의의 승리는 연동정치(linkage politics)의 역학을 잘 보여준다. 비에케스 투쟁을 승리로 이끈

38) 이미 1993년과 1998년 두 차례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근소한 표차로 미국의 51번째 주 편입안은 부결되었다. 독립을 희망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5%를 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주 편입을 주장하는 로셀로는 1996년 선거에서 51%로 재선되었다. 1998년 알래스카 출신의 영의원은 현상유지, 완전독립, 51번째 주 편입의 3개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Young Bill을 제안하여 이를 1표차로 통과시켰다. 푸에르토리코 독립당(PIP)은 양국간의 관계를 은폐된 식민지 관계로 보고 독립을 주장한다. 민중민주주의당(PDP)는 자치령 지위의 이점을 강조하며 현상유지를 주장한다. 페드로 로셀로 전 지사가 중심이 된 신진보당(NPP)은 미국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며 주정부 편입을 주장한다. 2000년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칼데론(Calderon)은 PDP의 후보이다. 2004년 선거에서 당선된 아니발 아세베도 빌라(Anibal Acevedo Vila) 역시 PDP 소속으로서 2005년 4월 푸에르토리코 상원과 하원이 푸에르토리코의 미국51번째 주 편입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 청원법안을 통과시키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법안은 51번째 주 편입, 완전 독립, 자치 확대 세 방안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푸에르토리코의 주정부 편입은 현실성이 별로 없는 주장이다. 푸에르토리코가 주로 편입될 경우 2명의 상원과 7명의 하원이 배정되는데 이것은 20여개의 군소 주정부보다 더 큰 권력의 등장함을 의미한다. 이미 3명의 푸에르토리코 정치인이 뉴욕을 중심으로 의회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심각한 정치지형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력이다. Russell Baruffi, *op. cit.*, p. 14.

결정적 요인은 비에케스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전국적인 차원으로 증폭시킨 정당, 시민단체, 교회, 언론의 결집된 힘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푸에르토리코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가령 해군과 주민들의 충돌사태를 가급적 무마하려 했던 이전의 지사들과 달리 해군기지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칼데론 후보가 2000년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사태는 급진전 될 수 있었다. 또한 그것은 히스패닉 유권자의 존재를 의식하는 미국 정부 지도자들의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비에케스 사태는 특히 디아스포라 정치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미국 본토에 거주하고 있던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민자들이 거대한 압력집단이 되어 한 목소리로 투쟁에 나섰으며 정치과정의 무대는 이미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⁰⁾ 따라서 흑자는 이들에 의해 대리전이 벌어졌던 뉴욕이야말로 비에케스 투쟁의 중심지였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거론될 문제는 환경오염의 문제이다. 오늘날 군사기지는 환경오염의 최대 주범이 되고 있으나 안보의 논리 때문에 비밀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지 전환의 정치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파괴와 오염의 피해를 복구하는 사후처리작업으로서 기존의 조사에 따르면 오랜 시간과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된다. 가령 미 해군이 하와이 카호올라웨(Kaho'olawe) 섬의 폭격훈련장을 폐쇄했을 때, 미 의회는 이 섬의 복원 예산으로 10년간 4억 달러를 투입할 것을 결의했으나 2001년 당시 8년차에 들어선 사업은 목표치의 10분의 1만을 달성하고 본래 사업 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¹⁾ 펜타곤은 필리핀이나 파나마와 같은 해외 미군기지의 경우에 심각한 환경오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지역은 철저히 황폐화되었으며 피나투보(Pinatubo) 화산 폭발 당시 클라크 공군 기지 안으로 피신했던 수만 명

40)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정치는 후기근대의 초국가적 정치체제의 등장을 예고한다.

Gabriel Sheffer, *Diaspora Politic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245.

41) Katherine T. McGuffee, *op. cit.*, p. 177.

의 현지주민들은 토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을 뒤늦게 확인하였고, 그 후 기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환경오염의 후유증으로 판단되는 심각한 질병들을 앓고 있다. 비에케스의 경우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지만 연방의회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푸에르토리코 정부로서는 정치적 지렛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군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국내기지의 경우에도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으며 하와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재원부족으로 중간에 작업이 포기 될 수도 있다. 레이더 시설을 제외한 해군부지는 비에케스 시, 푸에르토리코 주정부, 연방정부 내무성으로 관할권이 이전되는데, 문제는 이들 부지가 자연보호구역이나 야생동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형식적인 정화작업만 이루어지고 사실상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최악의 시나리오는 해당 지역이 너무 오염되어서 정화가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는 경우이다. 현재 폭격 훈련장이었던 섬 동부지역은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오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²⁾

현재 해군기지가 폐쇄된 비에케스는 거대 국제자본에 의한 대규모 리조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대형 호텔과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결국 부는 외부로 유출될 것이고 관광산업은 현지 주민들의 지위를 전락시킬 수 있다. 문화적 유산이 파괴되고 또 다른 방식의 환경오염이 초래될 수도 있다. 비에케스 주민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또 다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42) Comité Pro Rescate y Desarrollo de Vieques, "Military Contamination on the Island of Vieques, Puerto Rico and the People's Response, (<http://prorescatevieques.org> 검색일 2007. 4.2). 이 문제에 대한 국내자료로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섬전체가 미군과 싸우는 비에케스 사람들(1)", 『은누리 통일누리』 제48호 (2004/09/18); "섬전체가 미군과 싸우는 비에케스 사람들(2)", 『은누리 통일누리』 제49호 (2005/02/02).

<참고문헌>

- Ayala, César, "Recent Works on Vieques, Colonialism, and Fishermen", *Centro Journal*, Vol. x v, No. 1 (Spring 2003).
- Ayala Casás, Cèsar and Josè Bolívar Fresneda, "The Cold War and the Second Expropriation of the Navy in Vieques", *Centro Journal*, vol. x viii, no.1 (spring 2006).
- Barreto, Amílcar Antonio, *Vieques, the Navy and Puerto Rican Politics* (Gainesville : University of Florida Press, 2002).
- Baruffi, Russell, "Environmental Conflict and Cultural Solidarity : The Case of Vieques", This paper was prepared as part of a seminar on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Wat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Brown University, Providence, RI. USA. Spring, 2002.
- Comité Pro Rescate y Desarrollo de Vieques, "Military contamination on the Island of Vieques, Puerto Rico and the People's Response," (<http://prorescatevieques.org> 검색일 2007.4.2)
- Giusti-Cordero, Juan, "Vieques after September 11", *The American Prospect* (November 26, 2001).
- Lindsay-Poland, John, "U.S. Military Bas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Foreign Policy in Focus*, Vol. 6, No. 35 (October 2001).
- McCaffrey, Katherine T., *Military Power and Popular Protest : The U.S. Navy in Vieques, Puerto Rico* (New Jersey :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 Murillo, Mario, *Island of Resistance : Puertorico, Vieques and U.S. Policy* (New York : Seven Stories Press, 2001).
- O'Brien, Justin, "Puerto Rico Mayors Protest Military Bombing Exercises in Off-Shore Municipality of Vieques", *U.S. Mayor Newspaper* (May 15, 2000)
- Sheffer, Gabriel, *Diaspora Politic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Spencer, Jack, "The Importance of Vieques Island for Military Readiness", Heritage Foundation, *Issues* (February 16, 2001).

(<http://www.heritage.org>. 검색일 2007.4.2).

Vázquez, Rich, "Comité Pro Rescate y Desarrollo de Vieques v United States Navy", *Las Culturas* (13 August 2005).

World Socialist Web Site, "US Navy Resumes Vieques Bombings", (2 April 2002). (www.wsws.org. 검색일 2007.4.2)

The Internationalist, "Puerto Rican Labor : Shut Down All U.S. Bases!" *The Internationalist* (May 2000).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섬전체가 미군과 싸우는 비에케스 사람들", 『온누리 통일누리』 제48호 (2004/09/18).

_____ , "비에케스 싸움은 계속된다", 『온누리 통일누리』 제49호 (2004/10/01).

_____ , "해외 미군기지 투쟁사례 : 섬전체가 미군과 싸우는 비에케스", 『온누리통일누리』 제50호(2005/03/08).

<Abstract>

Military Base and Anti-Navy Protest in Vieques

Won-Seok Chang

The Puerto Rican island of Vieques has lately been the object of much intention. In April 1999, a Navy jet dropped a bomb off the mark from its intended objective in the target range in the east of the island, and killed a civilian security guard. This sparked a wave of protests in Vieques, in the main island of Puerto, and in the communities of the Puerto Rican diaspora i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Protesters occupied the target range for 13 months, until U.S. federal marshals forcibly removed them. Peaceful demonstrations in Puerto Rico twice assembled crowds of 1500,000. The two members of Congress who are Puerto Rican have been arrested while protesting the use of Vieques by the U.S. Navy as a target range.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movement is that it has not framed the Vieques struggle as exclusively an issue of national liberation. Instead, the struggle have been around concrete local issues. This paper deals with the local social movement with larger questions of power and politics in a colonial setting.